

# 한국인과 광장

양범모(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24

## 1. 서론

광장의 열기가 뜨겁다. 2016년을 뒤흔든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한다. 그야말로 민심이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마지막 집회에 서울에서만 9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였고, 연인원으로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sup>1</sup> 한편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역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며, 주최측의 주장으로는 촛불집회의 2배 이상의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sup>2</sup> 집계 인원 조작과 수당 지급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민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사이엔 두 민심의 첨예한 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축제의 장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광

장문화는 2008년 광우병 소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축구 촛불집회 등 비폭력적인 문화제의 형태로 진화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장이 되었다. 1999년 여의도광장이 공원화되면서 2002년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2003년 서울광장이 개장하기까지, 서울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광장 없는 도시’가 되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sup>3</sup> 오늘날의 광장이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온 것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여기서 본 논설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광장이란 개념이 원래 한국인에게 오래되고 친숙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광장은 서구문화의 산물이다. 서구 사회에서 광장은 시장, 정치집회, 종교의례, 문화예술 축제 등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sup>4</sup>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841.html#csidxf83add4e1535752ad9e38e22f3985f6](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841.html#csidxf83add4e1535752ad9e38e22f3985f6)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758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7589)

3) 안진희, 배정한 (2016). 광장에 대한 공론의 생성과 공간적 반영-여의도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대상으로

4) 신현돈, 조경진 (2009). 광화문광장 조성과정 및 설계 연구

반면 한국의 도시들에서 광장이 거의 발달하지 못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린광장은 고사하고, 한 도시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만한 광장조차도 없는 도시들이 즐비하다. 또 춘천의 ‘팔호광장’처럼 이름만 광장이지 실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단순한 교차로에 불과한 것들도 많다.<sup>5</sup> 그렇다면 근래에 광장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순간들은 광장이 형성된 최근에서야 태동된 새로운 문화인 것일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이 생기기 전 우리 역사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서 본 논설에서는 광장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고찰해본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한국인에게 광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 2. 광장의 정의 및 선행연구 조사

### 2-1. 광장의 법제적 정의

광장의 법제적 정의는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다.<sup>6</sup> 광장에 대한 세분류(표1)와 설치기준(표2)을 살펴보면, 광장은 형태와 규격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시설물의 형태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그 이용에 수반된다.

표 1.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칙」 제50조 (필자 요약 정리)

교통광장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일반광장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중략...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5) 황익주 (2005).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6)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9조·제50조

표 2.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중략...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고·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중략...
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후략...

법제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은 다른 시설인 도로, 공원 등에서 보여주는 정량적인 수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광장의 의미를 형태에 두고 있지 않으며,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주민의 집회, 사고, 오락, 휴식’으로 광장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광장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광장의 규모 및 형태가 아닌 광장의 이용이란 관점에 실마리가 있지 아닐까?

## 2-2. 선행연구 조사

국내의 광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심부의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내에 ‘광장’이 조성된 것이 1971년 여의도광장부터였고, 그마저도 공원화된 1999년부터 서울광장이 조성되기 2003년까지는 서울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광장이 없는 도시<sup>7)</sup>이었기 때문에 광장의 사례가 몇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대부터 광장문화가 발달해서 수많은 광장 사례가 존재하는 서양의 경우 광장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짚어보고자 한다. 서양의 광장 연구는 풍부한 사례를 토대로 물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유형화까지 연구가 발전하였다. 한편으로는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찰로 역사성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장소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나아간다.

광장은 대중에 의해 정의되는 물리적 공간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광장은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구체적인 욕구의 표현이며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그 광장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나타내는 장소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광장이라는 특정된 공간에서는 이러한 장소성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정의되고 표현되는가? 광장의 물리적인 실체는 일반적으로 광장 가운데 있는 상징물과 조각물, 그리고 주변 건축물의 투영에 의한 표현을 통해 나타나며 광장 속에서 행해졌거나 일어났던 사건(events)과 같은 인간행위의 상징성에 의해 광장의 장소성은 결정된다.<sup>8)</sup>

7) 차학봉 (1998). 조선일보 1998.04.30 27면

8) 정은일, 양영준 (2011). 도시광장의 장소성에서 나타난 도시정체성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역사도시 서안을 중심으로

표 3. 광장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요소	
			물리적 요소	비물리적 요소
국내	이정형, 이용훈, 정영도 (2013)	서울 도심부 3대 광장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며, 유럽은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선광장-후도시공간'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도시공간구조에 필요에 의해 뒤늦게 광장이 계획된 '선도시공간-후광장'	물리적 요소	광장 가로 블럭 건축물 가로
	안진희, 배정환 (2016)	여의도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의 형성과정에서 다음 광장의 공론 생성에 영향을 미침. 각 장소가 제시한 가치는 각각 계층의 평등화-한국의 현대성-역사성 회복이며, 각 시기에 추구한 이념이 구현되는 반복성을 지님	물리적 요소	시설물 광장
			비물리적 요소	사회적 공론 형성과정 이념
	신현돈, 조경진 (2009)	광화문광장의 조성과정을 잃어버린 역사성을 회복하는 과정	물리적 요소	설계 공모안
김은진 (2014)	1920-30년대 종로가도가 광장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연구하여 도로가 광장의 기능을 대체	물리적 요소	역사성 행진 루트 축제 종교	
국외	까밀로 지테 (Camillo Sitte)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미학적 관점으로 광장을 구성하는 원리를 연구하였으며, 위요 (Enclosure)를 필수적인 요소로 다른 요소들과 광장의 관계를 통해 지침을 제시	건축물 기념비 배치 높이 크기와 형태	
	롭 크리에 (Rob Krier)	도시공간의 기본적인 요소를 광장과 가로로 설정하고 원, 삼각형, 사각형을 기본으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세부 사항의 상호관계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유형학적이고 형태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시광장 유형학을 제안	물리적 요소	가로 광장 건축물
	볼노브 (O.F.Bollnov)	하늘 아래 일반적인 지붕 없는 장소와 달리 광장은 목적성이 있는 자유공간이다. 광장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인간이 창조한 목적성 공간	기하학적 요소	원 삼각형 사각형
			목적성	
프랑코 만쿠조 (Franco Mancuso)	도시조직에서 특히 광장은 비어있는 공간 즉, 공지로서 가로, 필지, 건축물 등의 주변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 공간이 형성되며 도시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그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는 핵심공간 도시 광장은 시장, 종교와 공공 기념비적 건축물, 축제, 행사, 여가활동 등과 더불어 도시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며, "도시 광장은 사회적·공동체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형성해나갈 수 있는 장소"	물리적 요소	공지 가로 필지 건축물	
		비물리적 요소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축제, 행사, 여가활동 공동체적 동질성	

### 3. 광장의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키워드 도출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 자체가 사적 소유자산으로 상품화되고 계량화되어 장소 혼이 사라지는 변화를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이 변화가 공간이 정의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도시에서 경관과 건축물은 제도권의 주체에 의해 배열된다. 그러나 ‘역사적 공간화’(Shields 1990; 1999, 로브 쉘즈·조명래)는 모든 사람이 공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sup>9</sup>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용도와 형태는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추억과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광장의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닌 비물리적인 요소 역시 광장의 성격을 규명하고, 광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광장’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장소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특징을 고려할 때, 광장의 형태와 규격으로 바라보는 물리적 시각은 한국의 광장을 재고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설에서는 **광장의 비물리적 요소(역사와 장소성)**으로 한국인의 광장을 재고찰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비물리적요소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해보면 <표4>와 같다.

표 4. 선행연구에서의 광장의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주요 키워드

선행연구	키워드
신현돈, 조경진(2009), 김정화,조경진(2013), 이영, 한경호(2011), 김동욱(2008)	국가의 상징 장소
프랑코 만쿠조(2009), 정은일(2011)	시민 자치의 장소
안진희, 배정환(2016), 최준석(2015), 안창모(2003), 프랑코 만쿠조(2009),	여론 형성의 장소
프랑코 만쿠조(2009), 김은진(2014)	축제의 장소
황익주(2010), 손기성, 홍성민(2012)	소통과 교류의 장소

### 4. 연구의 틀

도시 형태와 문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 사회구조를 알면 알수록 그들이 만든 환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스피로 코스토프, 2009)<sup>10</sup> 본 논설에서는 각 키워드를 통해 광장의 기능에 대해 고찰을 해보고,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역

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볼 것이다. 광장의 형태가 없던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광장의 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었는지,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 광장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광장의 물리적 요소가 아닌 비물리적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인 보편성을 지님을 고려하고

9) 안진희, 배정환 (2016). 광장에 대한 공론의 생성과 공간적 반영-여의도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대상으로

10) 박태민, 송대호 (2016). 시에나 캄포 광장의 도시조직적특성에 관한 연구

자 하였다. 역사적인 사건의 범위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확립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로 한정한다.

선행연구로 도출해낸 키워드 중 축제, 소통과 교류는 광장 고유의 특성보다는 오픈스페이스의 보다 광의적인 차원의 키워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설의 위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후 연구하기로 하였고 본 논설에서는 국가의 상징, 시민 자치, 여론형성의 장소로서의 광장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재고찰하고자 한다.

## 5. 광장의 비물리적요소에 대한 키워드 별 한국의 역사적 사건 고찰

### 5-1. 국가의 상징 장소 : 광화문 앞 육조거리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세종로, 광화문 네거리 일대는 600년 고도인 서울의 중심 가로이자 국가상징가로이다. 조선 왕조가 이곳에서 시작된 이후 서울의 역사가 이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황성을 두지 않은 궁궐에서 궁성 정문인 광화문은 단순한 출입문만이 아닌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세종 이후 의례가 정비되면서 광화문은 군례나 가례의 중요한 의식 장소로 쓰였다. 행사 때는 광화문 앞의 육조대로에 결채를 장식하거나 채봉으로 가로변을 치장하였으며, 도성 주민들이 가로변에 나와서 행사를 구경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육조대로는 문무과 시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대기하는 장소로도 쓰였으며 때로는 무과시험의 실기 시험장이 되었다. 임금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려는 시골의 선비들은 상소문을 들고 광화문 앞

으로 향했다. 광화문과 6조대로의 행사는 이처럼 도성 주민들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궁성과 황성을 갖춘 중국이나 고려 개경의 궁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sup>11)</sup>

광화문 앞은 황성이 없던 경복궁의 특성상 국가행사가 거행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도성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다. 광화문광장은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강점기엔 뒤돌어진 서울 상징축의 시발점이었고, 해방 이후 개발시대에는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권위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의 요람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되는 해외사례로 중국의 천안문 광장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성벽을 둘러 시민에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광화문광장은 궁궐의 앞마당으로써 국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국가의 상징공간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이러한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는 장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 해외사례 - 천안문광장

천안문광장 자리는 명나라 영락제 때 베이징 성을 건설하면서 어도(御道)가 설치되었던 공간이다. 당시의 어도는 내성의 정남문인 정양문과 황성의 정문인 천안문 사이에 있었으며 주변을 담장으로 둘러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다. 이 때문에 내성의 동서 교통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베이징 도심을 개발할 때 천안문 이남의 어도와 중화문, 장안우문, 장안좌문 등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광장을 조성했다.

문 앞의 대광장 주위에는 중앙관청이 모여 있고, 중국 내 국가적인 큰 행사 때에는 반드시 이 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1919년의 5·4운동 이래

11) 6세기 이후 중국 궁궐은 안쪽에 궁궐을 두르고 그 외곽에 다시 황성을 두고 관청을 집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것은 고려 개경의 궁궐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궁성과 황성의 이중 성벽을 갖추으로써 궁궐은 바깥의 주민 거주지와 2중으로 격리될 수 있고 궁성 문 밖에서 치러지는 궁궐의 많은 행사가 일반 주민들의 시선에서 차단될 수 있었다. 반면에 경복궁은 궁성만을 둬으로써 궁성 문을 나서면 바로 주민들의 거주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동욱 (2008). 조선초기 경복궁의 공간구성과 6조대로



중국인들의 시위집회에 많이 이용되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식도 여기서 행해졌으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하자 홍위병들을 소집해 본격적인 시작 선언을 한 곳도 이곳이며, 1976년 저우언라이의 사망을 기폭제로 제 1차 천안문 사건이 벌어진 곳도 이곳이며, 중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 2차 천안문 사건도 이곳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비롯한 국경일의 의식도 이곳에서 행한다.

## 5.2. 시민의 자치 장소 : 동학농민혁명 이후 관아 안뜰에 설치된 집강소

집강소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고을(郡·州)의 관아에 설치한 민정기관으로, 원래 동학의 교단조직에서 유래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을 무렵 각 지역의 치안 질서와 지방 행정은 거의 마비 상태에 놓여 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농민들은 기존의 신분질서와 착취구조에 축적된 분노를 터뜨렸으며, 관아의 안뜰은 탐관오리와 부패한 양반을 처벌하는 마당이 되었다. 농민군 중 흘러든 부랑자들과 과격한 자들로 인하여 약탈 및 살인이 빈번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치기구로서 집강소는 전라도 53주읍(州邑)의 관아 안뜰에 설치되었고, 동학교도가 각 고을(郡)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질서는 그들에 의해 유지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를 실현했다는 면에서 집강소 설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집강소는 프랑스혁명 후 시민혁명 과정에서 설치된 코뮌과 유사한 모습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학지도부는 각 군현의 집강들을 통해 폐정개혁을 위한 12개조의 행정요강을 공포하고 이를 집강소 운영의 준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고, 노비해방, 과부개가 허용·관리 채용에서 지역타파 등 혁명적인 조처였다. 이 중에서 상당 부문이 갑오개혁에서 수용되었지만, 시행은 더 긴 세

월이 지나야 했다. 동학혁명은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으나 그 역사적·사회사적 의의는 적지 않았고,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상징하는 행정기구이자, 동학농민혁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민자치활동이 일어난 장이었다. **광장이 없던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상징공간은 관아 안뜰이었는데, 집강소의 설치의 지배의 마당이던 관아 안뜰을 농민 자치활동의 마당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착취와 노역의 대상이었던 민중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반봉건·반외세의 자주사상을 깨우치며, 지방자치를 실현하였고 청일전쟁의 시발점이자 동북아 열강의 균형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집강소의 설치의 파ರಿ코뮌과 비견할만한 가치가 있다.

### 해외사례 - 파리 코뮌

파리 코뮌(프랑스어: La Commune de Paris, 1871년 3월 18일 ~ 5월 28일) 또는 프랑스 제5차 혁명은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민중들이 처음으로 세운 사회주의 자치 정부이다. 세계 처음으로 노동자 계급의 자치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라고 평가되고 있는 파리 코뮌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으며, 단기간에 불과하였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같은 해 3월 3일부터 마르세이유, 리옹, 생테티엔, 툴루즈, 나르본, 그레노블, 리모주 등의 지방 도시에서도 같은 코뮌 결성이 선언되었지만 모두 단기간에 진압되었다.

파리코뮌에 참여한 인민들은 야간 이념 학습을 통해 단결하였기 때문에 70일간 자치 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파리 코뮌은 프랑스를 자유로운 코뮌들의 연맹체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에 의한 지방정부인 코뮌을 수립하라는 호소문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마르세유 등에서도 코뮌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으며, 10시간 노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빵노동자의 야

간노동 철폐, 종교와 정치의 분리 등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파리 코뮌이 존재하는 동안 파리에서는 민중들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었다. 파리 코뮌 정부는 자코뱅파, 공산주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여성 참정권의 보장, 최대노동시간 제한 등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진보적인 정책을 폈다. 훗날 소비에트 연방의 창시자 레닌은 파리 코뮌을 "세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의 예행연습"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5-3. 여론 형성의 장소 :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종로거리, 대한문 앞 (지금의 서울광장)

만민공동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에 10여개의 각종 정치단체가 주최하고 군중의 요구에 의해 10여명의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하여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였다. 남녀노소, 직업과 신분과 관계없이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명을 밑도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1000만 서울인구로 환산하면 50만 명이 종로를 뒤덮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백정출신 박성춘(朴成春)이었다.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 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국편민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 받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었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

백정 출신 박성춘의 연설에 군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발표했다.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만민공동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였다. 젊은 날의 이승만 등이 열변을 토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제국의 신민(臣民)이 아닌 나라의 근본인 인민(人民)이 되어갔다. 이러한 시민들의 아우성에 힘입어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뜻을 모으고 시위로 정부를 압박하며 민중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은 종로 네거리에서 일어났다. 만민공동회에서 결의한 자주독립, 부패정치 척결과 민중의 참정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헌의6조를 고종은 받아들이는 척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려온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가졌고, 백성들이 공화국을 세우고 독립협회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우려한다는 소문에 만민공동회를 탄압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 앞잡이 노릇을 한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였다. 황국협회는 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대가로 활동상 특권을 받고 있던 보부상의 조직이다. 원래 보부상은 군대에 비견될 만큼 단결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조직이었는데, 그들이 마치 전쟁을 하듯 방망이를 들고 만민공동회를 습격한 것이다. 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서도 관제 폭력배들에게 저항했다. 일반 농민과 종로의 시전상인, 기생과 찬양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 거인과 어린이까지 종로에 집결하는 감동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대한제국의 희망이 가장 거세게 타올랐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황제는 백성의 희망에 줄곧 찬물을 끼얹었다. 관제폭력배로 전락한 보부상에게 밥과 국물을 하사하고 은덩이를 쥐어주었고, 보부상들의 집요한 난동과 군대까지 동원한 황제의 완강함 앞에 만민공동회는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어쩌면 대한제국은 이때 망했을지도 모른다. 권력자가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요구를 분쇄했고, 더욱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백성들을 적대하고 공격하라고 시켰다.<sup>12)</sup>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만민공동회의 시대정신

12) 김형민. 시사IN. 2016.05.13. 제451호





그림 1.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집결한 보부상들. 만민공동회를 습격하였다.(출처:위키백과)

이 지금의 촛불집회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는 관제 폭력배, 어용 시위대의 역사 역시 반복되고 있다. 그 집결장소가 오버랩되는 것은 우연일까, 역사의 반복일까.

광장의 중요한 장소성 중 하나인 민중의 여론 형성은 꼭 광장이라는 형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민공동회가 모인 종로네거리도 그렇고 프랑스혁명의 국민의회가 결성된 테니스코트도 그렇고, 사람이 모일 수만 있으면 그곳이 곧 토론의 장이 되고 그것이 곧 민심이 되었다. 지금의 촛불민심은 광화문광장이 생긴 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20년 전 만민공동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의 순간 종로네거리가 그 기능을 하였다.

#### 해외사례 - 테니스코트 선언

프랑스 혁명 과정의 중요 사건으로, 1789년 5월에 개최된 삼부회에서 평민계급 의원들은 계급별 투표에 반대하며 삼부회의 영국식 의회 개편과 헌법 제정 등을 주장했고, 귀족, 성직자 계급 의원들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귀족, 성직자 계급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6월 19일, 평민계급 의원들은 라파예트, 미라보 백작, 시에에스 등의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 의원들이 평민계급의 주장에 동조함에 따라 단독으로 삼부회를 국민의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반대하여 군대를 동원해 삼부회 회의장을 폐쇄시키고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 들었다. 이에 맞서 평민계급 의원들과 국민의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르니 플레지르 궁의 테니스 코트로 가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등의 과격한 주장들도 있었으나 결국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의회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

고 초대 의장으로 천문학자인 J.S 바이어를 선출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대회는 국민의회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결국 루이 16세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고 헌법제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왕권에 공공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고, 프랑스혁명의 시작이 되었다.

## 6. 결론

지금까지 광장의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광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해보았고, 각 키워드별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광장은 협의적으로는 일정한 규모와 형태를 가진 공터이지만, 광의적으로는 도시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그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는 핵심공간이다. 광장의 장소성은 광장에서 행해졌거나 일어난 사건과 같은 인간행위의 상징성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설에서 도출해낸 광장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국가의 상징 장소’, ‘시민의 자치 장소’, ‘여론 형성의 장소’, ‘축제의 장소’,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서의 광장의 기능이 발휘되고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광장의 시설적 측면이 아닌 시민들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광장의 기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장이란 형태의 역사는 무척 짧지만, 광장의 장소성은 유구한 세월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해왔다. 천안문광장보다 더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개방된 국가의 상징공간으로 기능해온 ‘광화문광장’이 있고, 봉건제도 타파와 주권수호, 신분제 철폐 등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세상을 꿈꾸었던 밑으로부터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이 유지되는데 농민 자치의 공간인 관아 안 마당이 기능해왔다. 구한말 현재와 많이 오버랩되는 만

민공동회가 개최되며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한 시민들이 종로거리에 모여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고 열강의 침탈을 저지해냈다.

지금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민중의 힘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의 시간동안 우리의 정신에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 정신의 표출은 광장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 광장이 없었을 땐 없었던 현상도 아니다. 이러한 광장의 장소성을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맞게 굳이 표현하자면 ‘마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정서에 맞는 ‘마당’의 관점으로 광장을 해석해보는 것은 어떨지 본 논설을 통해 제안해보고 싶다.

마당의 사전적 정의는 ①집 둘레나 건물 부근에 단단하고 평탄하게 닦아놓은 땅 ②어떤 일이 진행되는 자리나 장소로, 마당의 형태 및 생활과의 관계 외에 추상적인 행위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마당은 동양화의 여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여백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닌 한국인의 공간 정서를 잘 나타내는 요소가 된다. 마당은 여백으로서의 빈 혹은 비워진 공간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진흙을 형성하여 그릇을 만들면 그 비어 있는 허공에서 유용성을 찾게 되고, 집과 문과 창을 뚫게 되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유용성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존재하는 것은 유익성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실용성이 있다.’라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비움의 상태가 공간의 사용에 유용성과 다양성을 가지게 한다. 마당은 그냥 비어있는 빈공간이 아니라 항상 유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사용이라는 채움을 전제로 하여 비워둔, 기능면에서 불확정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공간정서로는 세련됨, 여유로움, 융통성, 질박함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서구의 경우는 규칙적,

13) 조정식 (1996). 마당의 초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직선적, 구체적, 질서정연함 등으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sup>14</sup> 서구문화가 유입되고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백’을 남길 여유가 없었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사이에 이러한 여백들은 가득 채워져 버렸다. 2002 월드컵의 열기를 바탕으로 서울광장이 탄생하고, 서울광장의 경험으로 광화문광장이 개장되어 민중의식 표출의 발판이 되었듯이, 지금의 시민활동으로 촉발된 광장에 대한 논의가 형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광장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상실된 ‘여백’이라는 개념과, 사라진 수많은 역사의 마당들을 재고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 마당’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시민들이 모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일상이 켜켜이 쌓여서, 또 다른 역사의 순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북한의 광장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김일성광장은 과연 평양 시민들의 마당인지, 정권의 체제선전과 군사퍼레이드의 앞마당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쿠조는 “도시 광장은 사회적·공동체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형성해나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하였다. 광장은 형태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추억이 쌓일 때 ‘우리마당’이 될 것이다.

14) 이호, 박수빈 (2009). 마당의 의미와 사용에 관한 연구